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특강 안도현 시인

타자를 이해하는 마음 '시적인 삶'의 출발

“시를 읽음으로 지친 일상에서 힘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시를 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적인 삶'을 사는 거다.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를 해석하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 삶이 훨씬 풍요롭지 않을까 싶다”

24일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학기 3번째 강연에서 안도현(52·우석대 문창과 교수) 시인은 '시를 읽는 저녁'을 주제로 시적인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연탄 시인'으로 잘 알려진 안 교수는 준비해온 시를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읽으며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날 안 시인의 강자 키워드는 '영동함' '창의성' '소통' '빈둥거림'으로 요약된다.

“시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

강제적 학교교육 창의성 상실

자유로운 상상력 존중해야

현대사회 지나친 경쟁 요구

시에서 힘과 위안을 얻어라

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려놓고'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다. 대부분은 '내려노코'라고 쓰는데 한 남학생이 '북'이라고 썼다. 물론 '북'이 모범답안은 아니다. 그러나 남학생의 답이 얼마나 기발한가. '시적인 것'이란 바로 그런 거다.”

안 시인은 “그동안 우리 학교 교육이 '영동함'에 대해 너그럽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분석적인데다 자기 검열을 강제했던 탓에 창의성이 죽어버렸다”고 일침을 놓았다.

새 정부가 가치로 내건 창조 경제는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둔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은 창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의성 교육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발상을 존중하고 가치를 견인하는 데서 빛을 발한다.

안 시인은 자신이 '연탄 시인'이라고 불리게 된 연유에 대해서도 일화를 곁들였다.

“첫 부임지로 발령받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 축제



24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안도현 시인이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때 백일장을 개최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을 이미지는 대부분 '나뭇잎', '황금들녘'과 같은 몇 개의 단어로 고정돼 있었다. 그래서 '연탄'을 소재로 시를 쓰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다. 내가 쓰게 된 이유다.”

자기 몸을 태우는 사물은 촛불과 연탄이 있다. 그러나 만약 “촛불 합부로 끄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던가”라고 했다면 울림은 없었을 터다. 촛불이 자기의 몸을 태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연탄이었기에 상징성과 울림이 배가되었었다.

발상의 전환, 창의성은 세상에서 유일 무이한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남과 다르다는 의미가 배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러한 안 시인은 백석의 '여승', 김소진 시인의 '장편'(掌篇) 등을 회원들과 낭송하며 타자와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 그는 “시를 쓰는 주체는 자신이지만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시적인 삶'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시인은 힘과 여유도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빈둥거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작금의 상황이 지나치게 성과와 경쟁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능력을 주장한다. 열심히 살고 꿈을 이루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쉬어라, 놀아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잘 놀고, 잘 쉬는 데서 창의성도 발전되고 '시적인 삶'도 살 수 있다.”

그는 '시를 읽는 저녁' '저녁이 있는 삶' 만큼이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좀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 구현될 거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사와 서부지방산림청 25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여승 광주일보사장(왼쪽 세번째)과 이현복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개선 및 산림 육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악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합참의장에 최윤희... 창군 첫 해군 출신

육참총장 권오성·해참총장 황기철

연합사부사령관 광주 출신 박선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참모총장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25일 “정승조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면서 “진급 및 보직 내정자들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처음 이뤄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최윤희(59·해사31기)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육·해·공군, 해병대 간의 합동성 강화와 군심 결집을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했다”면서 “최근 서해지역의 적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되어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최윤희 권오성 황기철 박선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는 권오성(55·육사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황기철(57·해사3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각각 내정됐다.

권 내정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을 지내는 등 전략·작전적 식견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해군작전사령관 시절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박선우(57·육

사35기) 합참작전본부장이, 1군사령관에는 신현돈(55·육사3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광주 출신으로 육사 35기인 박 내정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지역 안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관은 이영주(해사35기)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이 임명됐다.

성일환(공사26기) 공군참모총장과 권혁순(육사34기) 3군사령관, 김요환(육사34기) 제2작전사령관은 유임됐다. /연합뉴스

광주 내년 국비 3조1024억원 역대 최대

전남 6조3000억원 확보

내년 광주시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3조1024억원으로 확정됐고, 전남도는 6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된 2014년도 광주 시 예산안에 따르면 신규사업 37건 478억원과 계속사업 104건 3조546억원 등 총 3조1024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 2조5181억원보다 5843억원(23.2%)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자동차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그린카 클러스터 조성(10억원) ▲차고용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1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52억원) 등이다.

또 ▲OLED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10억원) ▲무등산 생태탐방체험관 건립(2억원) ▲차세대 DC전기전자사업(15억원) ▲국립아생동물보존원 광주 건립(3억원) ▲전통발효식품 클러스터 조성(3억원)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50억

원), 흑산도 소형공항(3억원), 자동차 튜닝 산업 기반 구축(12억원) 등의 현안사업이 국비에 포함되는 등 지난해보다 947억원이 늘어난 6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을 확보했다.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비는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센터 건립(5억원)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10억원) ▲동물대체 평가인증 기반구축(12억원) ▲천연물 의약품 시료 위탁생산 기반구축(17억원) ▲전력기반 차부품 미니클러스터 사업(38억원) 등이다. 또 ▲친환경 운송차량 E-Mobility 지원센터 구축(60억원) ▲전남도 사회복지관 건립(59억원) 등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박진표·오광복기자 lucky@

새정치경제아카데미 3기모집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고의 정치명문학교 <새정치경제아카데미>가 광주전남에 새 희망을 불러일으킬 3기를 모집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 실력, 준비를 갖춘 공인을 찾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1기와 2기의 교육에서 수강생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과 국내최고의 강사진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기과정은 검증되고 정선된 커리큘럼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여러분의 성공을 도울 것입니다.

이사장 조 정 관 원장 정 진 육

3기 개강일	일시	장소	강의일정
10.10_ 개강 초청특강 천정배 장관 (前, 법무부)	10.17_ 공진성 교수(조선대 정외과) “정치란 무엇인가”	10.19 ~20_1박2일 학습 임무만 정치명문가 “한국정치사로 본 ‘새정치’의 전망” 김대현 사무총장(아카데미) “선거 전략가의 비밀노트”	11.21_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한국정당의 정책과 정책적 과제” 11.28_ 케빈 리 교수(명지대, 디베이트지도자협회 회장) “토론에서 이기는 법” 12.5 _ 정병준 보도국장(KBS광주) “선거와 홍보전략” 12.12_ 이상석 사무처장(행의정 감시연대) “예산을 읽는 법” 12.14_ 줄임식(발표) 및 줄임특강 이원재 소장(전한거레경제연구소장) “새로운 정치와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24_ 김남수 대표(한백리서치) “선거와 여론조사”	10.31_ 정진욱 원장(아카데미) “정치가의 성공조건”	11.7 _ 최재용 원장(SNS전략연구소) “SNS를 활용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전략”	11.14_ 박창기 대표(혁신하라한국경제) 저자 “한국경제가 사는 길은?”

* 매주목요일 수업이며, 강의일정과 교수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62)225-0933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50 2F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이사진

- | 고 문 | 최영관 - 前)광주YMCA이사장 최 협 - 前)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임혁백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 사 장 | 조정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상임이사 | 이용빈 - 의사
- | 원 장 | 정진욱 - (주)황금씨앗 대표이사
- | 사무총장 | 김대현 - 前)국회의원 보좌관

- | 이 사 | 강경식 -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김경진 -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김길수 -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동채 - 여수경찰서 공동대표 김범태 -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 상임대표 김영록 - 세무사 김 윤 - 희망코리아정치연대 공동대표 김태훈 - 前)북구의회 의장 류재한 - 전남대학교 불문과 교수 민형배 - 광주 광산구청장 박매호 - (주)자연과미래 대표 박선희 - 前)한국의회발전연구회 회장 박인화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박 중 -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병원장 서삼석 - 前)우안군수 서일용 - 前)전남도의원
- 서정성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 유두석 - 前)장성군수 윤병철 -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개호 - F1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명철 - (주)기담대표 이민태 - 한중사상연구원 원장 이병훈 - 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이정남 - 前)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임우진 - 前)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순남 - 전남대학교 불문과 교수 정용식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정희곤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 조 민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조운기 - (주)백스 CEO이사 주경철 - ktj 에너지 대표 진재영 - 노무사 최민순 - 광주 남구회의의원 최영호 - 광주 남구청장 최원일 - 前)청와대 행정관